

# “교권 보호 장치 없다” 광주·전남 교사들 ‘담임 기피’

### 학생 지도 어렵고 학부모 요구사항 스트레스...법정 소송도 빈번 기간제 교사로 ‘돌려막기’ 급급...지난해 ‘기간제’ 절반 담임 맡아

# 광주에서 10년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이모씨는 “기회만 되면 담임교사를 그만두고 영어, 체육, 과학 등 ‘전담교사’로 빠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해가 갈수록 많아져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1학년, 6학년 등 학부모에 시달리는 학년은 담임 지원자가 아예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며 “극성인 학부모를 만나 1년 내내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니 몸도 마음도 편한 전담교사를 맡고 싶다”고 말했다.

# 광주의 한 중학교 박모 교장은 신학기가 올 때마다 담임 맡을 교사를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교사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할 일도 많은데 학부모와 부딪히는 것이 싫다며 선택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박 교장은 “담임 수당을 얹어준다고 해도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실정이라, 힘없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일을 몰아주는 게 다반사다”며 “담임이 극한 직업이 된 마당에 교사에게 무작정 책임감을 강요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광주·전남 교사들 사이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을 맡으면 현장 업무가 많은 것은 물론 학생·학부모를 대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각종 분쟁으로 법정 소송에 시달리는 일도 잦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비해 교권 보호 장치는 없다시피 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누가 나서서 고생을 하겠냐”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는 정교사로 채우지 못한 담임 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돌려막기’ 하고 있어 교육 현장에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중·고교 담임 10명 중 2~3명은 기간제 교원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2022학

년도 광주 중·고교 담임 교사는 총 3550명으로, 이중 32%인 1144명이 기간제 교사였다. 기간제 교사 비율은 지난 2018년 총 3680명 중 927명으로 25%였던 것에 비해 7%포인트 증가했다. 전남 또한 지난해 총 4496명의 담임교사 중 22%인 1032명이 기간제 교사로 채워졌다. 비율은 지난 2018년 총 4650명 중 541명으로 12%였던 것에 비해 10%포인트 급증했다. 초·중교사는 원래 기간제 교사가 적지만, 그 중에서도 담임을 맡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2018년 초등 기간제교사 중 담임을 맡은 이는 광주 28명·전남 162명이었으나, 지난해는 광주 37명·전남 226명으로 30~40%가량 증가했다. 또 광주·전남 기간제 교사 절반 이상은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초·중·고 기간제 교사 1997명 중 59.1%인 1181명이 담임을 맡았으며, 전남에서도 기간제 교사 2541명 중 49.5%인 1258명이 담임교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관계자들은 담임 수당이 13만원으로 10년 넘게 동결된데다 담임에게 학생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점 등을 담임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박삼원 광주교사노조 사무총장은 “돈도 안 되고, 학부모로부터 무시당하고, 학교폭력 등으로 법정

싸움도 많이 하는데 아무도 보호해 주질 않으니 담임을 안 하려 하는 건 당연하다”며 “담임 수당을 월 30~50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정교사 비율을 줄이고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는 점도 담임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에게 짐을 떠넘기려는 이들이 늘면서 정교사들의 담임 기피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비 교사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교육부가 2024년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교대생들 비롯한 전국교육대학생 연합은 지난해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값싼 교육을 하기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경 광주교대 총학생회장은 “비정규직 교사가 날로 늘면서 기간제 담임 교사 등 문제로 교육 현장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비정규직 확대’ 기조가 반영되지 않도록 교대 총학생회장단들이 모여 공동행동과 기자회견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마스크 벗고 책 많이 읽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완전한 일상회복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7일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 어린이도서관을 찾은 부부가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공립 중등교사 ‘여초 현상’ 심화

합격자 3명 중 2명 ‘여성’  
광주·전남 공립 중등교사 합격자 3명 중 2명은 여성으로 교사 ‘여초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7일 2023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 41명을 시교육청 누리집과 내선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는 전체 14개 과목에 모두 583명이 지원했다.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과 제2차 시험(실기,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의 2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했다. 전체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80.49%(33명)로 전

년과 비교해 6.74% 늘어났다. 합격자 연령대 비율은 20대 30명(73.17%), 30대 7명(17.07%), 40대 4명(9.76%)이며, 졸업자는 34명(82.93%), 2월 졸업 예정자는 7명(17.07%)이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합격자 323명을 누리집에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제1차 합격자 499명을 대상으로 실기평가, 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등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전체 합격자 323명 중 타 시도 출신은 179명(55%)이며, 여성 합격자는 235명(73%)으로 나타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교육, 기초학력·실력 향상 원년 삼는다

### 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 핵심 정책 추진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를 기초학력과 실력 향상 원년으로 삼기 위해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을 ‘다양한 실력이 광주교육의 미래’라는 목표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올해 본격 추진하는 사업 전반을 설명했다. 공립유치원을 방학 중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놀이강사를 지원하고 놀이배움터를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하 유지, 기초학력 전담교사 학교당 1명 배치, 광주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중학교는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 운영, 1학년 2학기부터 지필평가 실시,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장과 실력향상을 함께 도모한다. 일반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환경 구축과 인프라 조성에 중점을 뒀다. 학생 주도의 365스터디룸 설치, 1고교 1대입 전문 디렉터 양성 등 학교 내 대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점진적 학과 재구조화 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 특수학교는 학생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 함께하는 삶을 지원하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또 스마트기기 보급과 AI(인공지능) 팩토리 구축, 초·중학생 대상 AI 등 교육 수업시수 확대,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등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졸업앨범비 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등 보편적 교육복지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는 광주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광주교육은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 북구, 저소득 자립 지원 희망저축 대상자 모집

광주시 북구가 매월 저축을 하면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는다. 북구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3년 자생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 I·II’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대상인 ‘희망저축계좌 I’는 3년간 근로 소득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저축액 360만원에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

위계층 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같은 기간 동안 일을 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시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을 더해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희망저축계좌 I은 오는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 II는 22일까지 모집하며, 가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